

국제신문

www.KOOKJE.co.kr

2005년 09월 02일

[사설] 부산이 다시 일어서려면

부산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나타났다. 본지가 창간 58주년을 맞아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멀지 않은 시기에 부산이 제2도시의 위상을 잃거나 이미 잃었다는 대답이 60%를 넘어선 것이다.

부산의 위상 추락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덩치'만 클 뿐이지 질적인 면에서는 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인천 광주보다 못하고 울산의 3분의 1에 그친다. 건설 발주액, 소매업 판매액, 실업률 등을 집계한 고통지수는 16개 시·도 중 최악이며 삶의 질이나 도시 안전도, 문화 혜택도 낙제 수준이다. 서울에 비해 10년 가량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도시경쟁력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몰락 위기에 처한 부산이 재기하려면 새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다, 그 중에서도 부산항이다. 물량 위주의 단순 화물적지에서 벗어나 고부가 함만으로 거듭난다면 회생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또 기존의 항만 지역을 활용해 해양 레저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관광산업도 키울 수 있다.

태평양의 관문이자 대륙의 출발점이라는 지리적 여건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남부권 신공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사항이 됐다. 바닷길과 하늘길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물류 교통 관광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륙철도가 언제될지 모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 보듯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자원'을 키우는 것이 사활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는 더욱 더 깊이 지식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모든 것이 쇠퇴하고 있는 부산이 이마저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by kookje.
webmaster@kookje.co.kr

国際新聞 2005年9月2日

【社説】釜山が再度一度立ち上がるには

釜山の未来の見通しが暗く現れた。本紙が創刊 58 周年を迎え、釜山出身の人士を対象に世論調査を実施した結果、遠くない時期に釜山が第2都市の地位を失うか、あるいはすでに失っているとの回答が60%を超えた。

釜山の地位の墜落は、もちろん昨日今日のことでない。「図体」のみ大きいだけで質的な面では広域市の中で最下位クラスである。一人当たりの地域内総生産はインチョン(仁川)、クァンジュ(光州)より悪く、ウルサン(蔚山)の3分の1に留まっている。建設発注額、小売業の販売額、失業率等を集計した窮状指数は16ヶの市と道のなかでも最悪であり、生活の質や都市の安全度、文化の恵沢も落第レベルだ。ソウルに比べ10年程度立ち遅れているとの調査が出たが、実際には都市競争力は40%にも満たないというのが現実だ。

没落の危機に直面した釜山が再起するためには、新しい成長のための活力探しが最大の急務である。現実的にアプローチできるのが海である。なかでも釜山港だ。物量本位の単純な貨物積置から抜け出し、高付加価値港湾に生まれ変わるならば再生の可能性が開かれるだろう。また、既存の港湾地域を活用し、海洋レジャーの機能を強化すれば観光産業も育てることができる。

太平洋の関門であり、大陸の出発点という地理的な与件も十分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南部圏の新空港は、すでに選択ではなく生き残りの必須事項となった。海路と空路が調和してこそ、物流、交通、観光などがシナジー効果を出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大陸鉄道がいつできるか分からない点を勘案すれば、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も一つの方案になり得る。ヨーロッパで分かるように、その波及効果は非常に大きい。

中・長期的には「知識資源」を育てることが死活の分かれ道になるだろう。現在もそうであるが、未来はさらに深く知識社会になってゆくとの見通しだ。全てが衰退している釜山がそれまで逃したら、2度と機会は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ある。